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미¹, 박정숙^{2*}, 신은정¹

¹거제대학교 간호학과, ²계명대학교 간호대학

Factors Influencing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Soung-Mi Nam¹, Jeong-Sook Park^{2*}, Eun-Jung Shin¹

¹Department of Nursing, Koje College

²Department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전국 간호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영남지역 4개 간호대학생 전체를 성별 및 학년을 기준으로 할당 표본 추출한 2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위해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정, ANOVA 및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인성은 평균 5점 만점에 평균 3.84점이었으며, 대학진학 동기, 교과 외 활동, 수업참여도에 따라 인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생태체계이론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체 변인에 대한 첫 번째 모델에서 긍정정서, 의사소통능력이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미시체계 변인을 추가한 두 번째 모델에서는 가족건강성과 전공만족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의사소통능력($\beta=.431$, $p<.001$), 전공만족도($\beta=.310$, $p<.001$), 가족건강성($\beta=.176$,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55.6 % 설명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과 전공만족도, 가족건강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예측변수를 파악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using ecological theory.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with 296 nursing students. Collected data from self report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WIN 21.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 total of 2 models were examined according to individual, microsystem in ecological system theory. In the first model including individual factors, positive emotion, communication ability were significant factors explain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In the second model adding micro system factors family strength and major satisfaction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The prediction factors of nursing student' character were communication ability ($\beta=.431$, $p<.001$), major satisfaction ($\beta=.310$, $p<.001$) and family strength ($\beta=.176$, $p<.001$). The explanation power was 55.6%. These results showed that factors affecting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are communication ability, major satisfaction, and family strength. Therefore, we suggest to develop various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considering these factors.

Keywords : Nursing Students, Character, Communication Ability, Major Satisfaction, Family Strength

*Corresponding Author : Jeong-Sook Park(Keimyung University)

email: jsp544@gw.kmu.ac.kr

Received May 9, 2019

Revised June 7, 2019

Accepted August 2, 2019

Published August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 교육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에 대해 성인 2000명 중 약 48% 응답자가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라고 답하였다[1].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부는 '인성교육 강화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각급 교육기관에서 배양된 인성이 대학 진학 후에도 유지, 발전, 완성될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거쳐 오면서 지식 측면에만 몰두하였고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들이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과와 교과 외 과정에서 인성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2].

간호대학생은 4년의 교육과정 동안 간호사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각 간호학과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학습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훈련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을 하고 임상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3]의 연구에서 신규간호사에게 중요한 핵심역량은 간호지식과 기술, 올바른 인성과 윤리의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인을 대하는 자세인 배려, 성실함, 타인 존중 등을 포함하는 인성교육은 다양한 대상자를 간호하고 접촉해야 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 대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4]. 뿐만 아니라 간호교육의 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교육평가원은 3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기준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5]. 그러나 간호교육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여 학생들이 인성과 관련된 충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6].

인성은 포괄적이며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역동적인 체계이므로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7]. Bronfenbrenner[8]는 생태체계이론에서 인간은 주변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므로 변화하는 사회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므

로 인성을 연구할 때 개인 및 환경을 포함한 맥락 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개인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 체계는 겹겹이 중첩된 동심원적 구조로 되어있다. 각각의 생태학적 환경체계는 하위 환경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각 유기체는 생태학적 환경체계들과 상호작용, 적응, 성장 발달한다[8].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인성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Lee와 Chin[9]은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사회체계의 영향과 함께 일차적인 환경으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Park[3]은 대학생 인성 실천도를 유기체 요인으로 설정하고 가정, 학교, 사회 환경체계를 미시체계 요인으로 하여 대학생의 인성함양에 대한 예측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인성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대학생활 적응은 유의한 중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4],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10],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학생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11] 등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측모형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 맥락 내에서 파악하고자 Bronfenbrenner[8]의 생태체계이론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긍정정서, 주관적 건강인식, 의사소통능력, 가족건강성, 대학생활 참여도,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긍정정서, 주관적 건강인식, 의사소통능력, 가족건강성, 대학생활 참여도, 전공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1.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Bronfenbrenner[8]의 생태체계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유기체 변인과 미시체계로 구성된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설정하였다. 유기체 변인은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여러 환경 체계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각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인성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긍정정서, 주관적 건강인식, 의사소통 능력[12,13] 등을 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변인인 유기체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미시체계는 유기체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물리적·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환경 내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활동, 역할 및 대인관계의 유형으로 정의된다[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 대학생활 참여, 전공만족도 및 사회적지지[4,11] 등을 미시체계 변인으로 구성하여 개념적 기틀을 구축하였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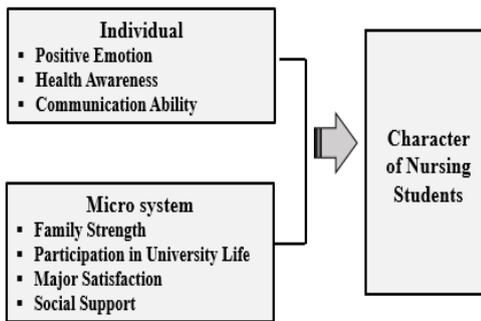


Fig. 1. Conceptual framework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하여 유기체 변인인 긍정정서, 주관적 건강인식, 의사소통능력과 미시체계 변인인 가족건강성, 대학생활 참여, 전공만족도, 사회적지지가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 검정력 확보를 위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one-way ANOVA test,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beta$) 0.90, effect size 중간 크

기 0.25, 5개 그룹일 때 255명이었다. 본 연구의 표본추출을 위해 2018년 교육통계(<https://kess.chedi.re.kr/index>)를 살펴본 결과 전국 간호대학생은 1학년 10,573명(23.4%), 2학년 11,795(26.1%), 3학년 11,703명(25.8%), 4학년 11,203(24.7%), 남학생 8,922(19.7%), 여학생 36,352(80.3%), 총 45,274명이었다. 이를 모집단으로 하여 대구시, 부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 각 1개교를 임의 표집하였다. 이후 각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성별 및 학년을 기준으로 대학 당 80명을 할당 표본추출 하였다.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12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97.5%였다. 이 중 불완전한 응답지를 제외한 296부를 최종 연구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인성

간호대학생의 인성수준은 Lee, Kang과 Kim[1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인성 측정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인지영역 23개 문항, 정의영역 25문항, 행동영역 12문항 총 60개 문항이며,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6 이었으며, 본 연구에는 Cronbach's α .957이었다.

2.3.2 긍정정서

Lee, Kim과 Lee[15]가 개발한 긍정 및 부정정서 척도(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Yoon[16]이 수정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긍정정서 총 18문항,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 30일간 긍정정서를 많이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oon [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1이었다.

2.3.3 주관적 건강 인식

주관적 건강 인식은 Ban[17]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나는 건강에 대해 자신이 없다,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만큼 건강하다, 나는 건강한 편이다 등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를 측정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Ban[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12이었다.

2.3.4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은 Hur[18]가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척도를 Lim[1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ur[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2이었으며, Lim[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4로 나타났다.

2.3.5 가족 건강성

가족 건강성은 Yoo, Lee, Kim과 Choi[19]가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Ⅱ(KFSS-Ⅱ)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 5개요인(가족탄력성 7문항, 상호존중과 수용 5문항, 질적 유대감 4문항 경제적 안정과 협력 3문항,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 높을수록 가족 건강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oo, Lee, Kim과 Choi[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62이었다.

2.3.6 대학생활 참여

대학생활 참여는 Park[13]이 대학인성교육 재고를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 [1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2이었다.

2.3.7 전공만족도

Jang[20]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일반적 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ang[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5이었다.

2.3.8 사회적 지지

Park[13]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친구의 정서적지지 2문항, 사회관계망

지지 2문항, 교수의 정서적지지 2문항),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1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79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영남지역 소재 4개 간호대학의 간호학과장에게 전화로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 허락을 받은 뒤 학교 당 80부의 설문지와 학년별, 성별 샘플 수와 주의사항에 대한 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배송하였다. 해당 대학의 학과장 혹은 교수는 각 학년 학생 대표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학년별 성별로 할당된 인원만큼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도록 하여 교수의 개입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목적과 방법, 피험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와 비밀보장, 중도포기 가능, 자발적 동의, 연구자의 연락처가 명시된 동의서를 설문지 첫 장에 삽입하여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서면동의를 한 후 응답 하도록 하였고,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개별화된 ID만을 부여하여 연구자료 보관 파일에 따로 저장하여 관리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인성과 제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의 차이분석은 Independent t-test 또는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를 시행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 4)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관련 요인 정도

대상자의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84점이었으며, 인지적 영역은 3.93점, 정서적 영역 3.96점, 행동영역 3.59점으로 정서적 영역의 인성이 가장 높았다. 긍정정서는 5점 만점에 2.87점, 주관적 건강인식은 5점 만점에 3.52점, 의사소통 능력은 5점 만점에 3.91점, 가족 건강성은 5점 만점에 3.81점, 대학생활 참여는 5점 만점에 3.36점,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0점,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3.97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296)

Variables		Mean±SD
Character level	Cognitive	3.93±0.49
	Affective	3.96±0.48
	Actual	3.59±0.64
	Total	3.84±0.45
Positive Emotion		2.87±0.65
Health Awareness		3.52±0.43
Communication Ability		3.91±0.55
Family Strength		3.81±0.78
Participation in University Life		3.36±0.88
Major Satisfaction		4.00±0.62
Social Support		3.97±0.62

3.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대학진학 동기, 교과 외 활동, 수업참여도에 따라 인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진학 동기에서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대상자의 인성이 가장 높았고(F=3.510, p=.008), 교내, 외 동아리 모두 참석하는 대상자(F=3.466, p=.017),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대상자(F=8.34, p<.001)의 인성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Table 2. Difference in Character level b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6)

Variables	Categories	n (%)	Character level		
			Mean±SD	t/F Scheffé	p
Gender	Male	57 (19.3)	3.79±0.47	-.978	.329
	Female	239(80.7)	3.85±0.44		
Grade	1st	68 (23.0)	3.83±0.45	.638	.591
	2nd	78 (26.4)	3.79±0.42		
	3rd	77 (26.0)	3.87±0.46		
	4th	73 (24.7)	3.86±0.46		
Housing type	with Family	161(54.4)	3.84±0.46	.275	.760
	Dormitory	85 (28.7)	3.81±0.44		
	By oneself	50 (16.9)	3.87±0.44		
Grandparent living experience	Past	99 (33.4)	3.88±0.45	.681	.507
	Now	29 (9.8)	3.82±0.43		

Admission motivation	None	168(56.8)	3.81±0.45	3.510	.008
	Self	150(50.7)	3.90±0.44		
	Adult recommends	49 (16.6)	3.63±0.48		
	By score	13 (4.4)	3.82±0.31		
	Easy to get a job	72 (24.3)	3.84±0.44		
Leader experience	etc	12 (4.1)	3.88±0.38	1.814	.071
	Yes	161(54.4)	3.88±0.45		
Extra curricular activities	No	135(45.6)	3.78±0.44	3.466	.017
	College circles	149(50.3)	3.89±0.42		
	Social circles	13(4.4)	3.76±0.46		
	College& Social	49(16.6)	3.92±0.44		
Class participation	None	85(28.7)	3.71±0.48	8.340	a<c
	Passive ^a	30(10.1)	3.79±0.39		
	Moderate ^b	175(59.1)	3.76±0.45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ctive ^c	91 (30.7)	3.99±0.42	1.348	.179
	Yes	156(52.7)	3.87±0.46		
Last semester grade	No	140(47.3)	3.80±0.43	2.059	.106
	<3.0	18 (6.1)	3.71±0.49		
	3.0≤~< 3.5	113(38.2)	3.79±0.46		
	3.5≤~<(4.0	120(40.5)	3.91±0.42		
Character Education experience	4.0≤	45 (15.2)	3.81±0.44	1.678	.094
	Yes	191(64.5)	3.87±0.45		
Character Education experience	No	105(35.5)	3.77±0.44		

3.3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인성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능력(r=.673, p<.001), 전공만족도(r=.586, p<.001), 가족건강성(r=.503, p<.001), 사회적 지지(r=.477, p<.001), 대학생활 참여(r=.465, p<.001), 긍정정서(r=.317, p<.001), 주관적 건강인식(r=.223, p<.001) 순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296)

	1	2	3	4	5	6	7	8
1. CL	1							
2. PE	.317 (p<.001)	1						
3. HA	.223 (p<.001)	.129 (p=.027)	1					
4. CA	.673 (p<.001)	.297 (p<.001)	.307 (p<.001)	1				
5. FS	.503 (p<.001)	.240 (p<.001)	.238 (p<.001)	.503 (p<.001)	1			
6. PUL	.465 (p<.001)	.282 (p<.001)	.104 (p=.074)	.461 (p<.001)	.367 (p<.001)	1		
7. MS	.586 (p<.001)	.279 (p<.001)	.151 (p=.009)	.494 (p<.001)	.354 (p<.001)	.463 (p<.001)	1	
8. SS	.477 (p<.001)	.211 (p<.001)	.201 (p=.001)	.548 (p<.001)	.363 (p<.001)	.430 (p<.001)	.551 (p<.001)	1

1.CL. Character Level, 2. PE. Positive Emotion, 3. HA. Health Awareness, 4. CA. Communication Ability, 5. FS. Family Strength, 6. PUL. Participation in University Life, 7. MS. Major Satisfaction, 8. SS. Social Support

3.4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체변인인 긍정정서, 주관적 건강인식, 의사소통 능력과 미시체계 변인인 가족 건강성, 대학생활 참여,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2.176($du=1.821$)으로 자기 상관없이 독립적이며, 독립변수의 공차한계는 .581~.867으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25~1.720으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 결과 개체변인만 포함된 모델 I에서 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능력($\beta=.635$, $p<.001$), 긍정정서($\beta=.128$, $p=.004$)로 나타났다. 모델 I은 대상자의 인성을 46.3% 설명하였다. 미시체계 변인이 추가된 모델 II에서는 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기체 변인 중 의사소통능력($\beta=.402$, $p<.001$)이 나타났으며, 미시체계 변인에서 전공만족도($\beta=.279$, $p<.001$), 가족 건강성($\beta=.159$, $p=.001$)가 확인되었다. 모델 II는 모델 I보다 대상자의 인성을 9.5% 증가한 55.8% 설명하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haracter according to Ecological system variables (N=296)

Variables		Model I	Model II
		$\beta(p)$	$\beta(p)$
Individual	PE	.128 ($p=.004$)	.060 ($p=.151$)
	HA	.012 ($p=.784$)	.004 ($p=.927$)
	CA	.635 ($p<.001$)	.402 ($p<.001$)
Micro system	FS		.159 ($p=.001$)
	PUL		.074 ($p=.112$)
	MS		.279 ($p<.001$)
	SS		.000 ($p=.994$)
	R^2	.463	.558
	ΔR^2		.095
	F(p)	85.654 ($p<.001$)	54.204 ($p<.001$)

PE. Positive Emotion, HA. Health Awareness, CA. Communication Ability, FS. Family Strength, PUL. Participation in University Life, MS. Major Satisfaction, SS. Social Support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학 진학동기, 교과 외 활동, 취업참여를 더미변수 처리하고, 개체변인과 미시체계 변인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2.176($du=1.821$)으로 자기 상관없이 독립적이며, 독립변수의 공차한계는 .633~.756으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97~1.687으로 모두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분석결과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의사소통능력($\beta=.431$, $p<.001$)이 전체변량의 45.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beta=.310$, $p<.001$)가 포함되어 전체 변량의 5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건강성($\beta=.176$, $p<.001$)이 포함되어 총 설명력은 55.6%이었으며, 모형의 분산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F=15.072$, $p<.001$)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N=296)

	B	β	t	p	R^2	Adj R^2	F(p)
(constant)	1.176		8.435	<.001			15.072 ($<.001$)
CA	.350	.431	8.848	<.001	.453	.451	
MS	.226	.310	6.890	<.001	.538	.535	
FS	.101	.176	3.882	<.001	.561	.556	

CA. Communication Ability, MS. Major Satisfaction
FS. Family Strength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84점이며, 인지적 영역 3.93점, 정의적 영역 3.96점, 행동적 영역 3.59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의 순위는 정의적 영역의 인성이 가장 높았고, 행동적 영역의 인성이 가장 낮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들과 영역별 점수, 영역의 순위가 유사한 결과이다[4,10]. 행동적 영역의 인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역량이 다소 낮다는 의미이다. 이는 간호대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생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며[21],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이 도덕적인 추론이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실제적 교육보다는 여전히 입시 중심적, 인지위주의 교육

임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고 여겨진다. Lickona[22]는 훌륭한 인성의 도덕적 행동은 수행능력, 의지, 습관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였다. 수행능력이란 도덕적 판단능력과 감정을 도덕적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 의지는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며, 습관이란 선택의 순간에 진실, 공정을 바탕으로 자신이 행위하도록 만드는 힘이다. 추후 간호대학생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행동적 영역의 인성을 높일 수 있는 수행능력, 의지, 습관 등의 교육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은 대학 진학동기, 교과 외 활동, 수업참여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대학 진학동기에서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진학한 대상자의 인성이 가장 높았고, 교내 동아리와 교외 동아리 모두 참석하는 대상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인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수업 참여도가 '매우 적극적'인 경우, 지원동기가 '적성과 흥미'인 경우 인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Jeong[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한 인성의 핵심 역량은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통합된 능력을 의미한다[23]. 이는 인성의 핵심역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전제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따라서 대상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특성은 인성과 관련 있는 중요한 태도 요소이다. 적극성과 능동성은 대상자에게 친숙하며 공감대가 형성되는 학습 주제를 체험적으로 학습할수록 크게 발현된다. 그러므로 추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적극성, 능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친숙한 이슈들을 학습 주제로 선정하여 직접적으로 실천, 체험할 수 있는 역할극이나 체험학습 등의 학습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체 변인인 긍정정서, 주관적 건강인식, 의사소통 능력은 모두 5점 만점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긍정정서는 2.87점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Yoon[16]의 연구결과인 2.97점과 유사했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3.52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Ban[17]의 연구 결과인 일반청소년 3.76점, 문제행동청소년 3.78점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들은 학업량이 많고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의 특성상 스트레스가 많으므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수준을 다소 낮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소통 능력은 3.91점으로 간호대학생에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Hwang[24]의 연구결과인

3.66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측정 시기에 따라, 간호교육기관의 학습성과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며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미시체계의 변인인 가족 건강성, 대학생활 참여,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모두 5점 만점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가족 건강성은 3.81점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im[25]의 연구결과인 3.45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 집단의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 분석은 어려울 수 있으며 추후 반복연구로 확인이 필요하다. 대학생활 참여는 3.36점으로 대학생에게 같은 도구를 사용한 Park[13]의 연구결과인 3.19점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전공만족도는 본 연구에서는 4.00점이었으나 Jang[20]의 연구에서는 3.89점, Park[13]의 연구에서는 3.69점으로 본 연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간호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교과목과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지속적, 반복적, 통합적으로 간호사 핵심역량을 성취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인성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능력, 전공만족도,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참여, 긍정정서, 주관적 건강인식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인성과의 관계에서 높은 상관을 나타낸 변수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능력, 전공만족도 및 가족건강성이다.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는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im[12]의 연구에서도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의 결과를 나타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한 인성교육의 '핵심가치' 중 하나가 바로 '소통'이다[23]. 즉 인성교육의 '핵심역량'은 핵심가치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이다. 이는 의사소통 능력이 인성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내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인성과 전공만족도 사이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과 전공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Nam과 Kim[2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바람직하고 안정된 성격일수록 자기 직업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 있게 생각하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 한다[27]. 이는 인성수준이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우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면 대상자

의 인성뿐 아니라 전공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성과 가족건강성은 상관관계를 측정한 연구결과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가정환경체계가 인성 실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13]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를 통해 가족의 애정 어린 지지와 상호존중이 바탕인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인성이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이론적 기틀을 적용하였다. 유기체 변인과 미시체계 변인을 순차적으로 대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먼저 유기체 변인만 포함된 모델 I에서 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능력과 긍정정서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인성을 46.3% 설명하였다. 미시체계 변인이 추가된 모델 II에서는 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기체 변인 중 의사소통능력이 나타났으며, 미시체계 변인에서 전공만족도, 가족 건강성이 확인되었다. 의사소통능력은 유기체 변인만 포함된 모델 I과 미시체계 변인을 순차적으로 대입한 모델 II 모두에서 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은 사람들 간의 정보 및 정서교류를 통해 모든 사회조직과 사회현상의 기본을 형성하는 토대이며[28],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요소로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12]. 의사소통능력은 다양한 대상자들과 치료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다른 의료진과의 원만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임상현장에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이므로[29]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모델 II에서는 전공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26]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체계내의 맥락에서 친구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 교수자의 정서적 지지는 인성을 실천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준다[13]. 따라서 다양한 미시체계 내 변인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대상자의 인성과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유기체 변인과 미시체계 변인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을 고려한다면 대상자의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한편 Seo[30]의 연구에서는 가족 건강성이 인성에 대

한 상대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인성교육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습상황을 생각해 보면 학습자는 가족 내에서 롤 모델이 되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마련이다. 학습자와 롤 모델 사이에서 인성과 관련된 실제적 교수학습이 일어나게 되므로 가정은 '인성교육의 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변화로 인해 가정 내에서 행해졌던 교육이 학교로 많은 부분 옮겨오게 되면서 학교에서의 인성과 관련된 교육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인성과 가정환경은 연관성이 높으므로 대학에서 인성교육 내용 중 미래 부모로서의 책임과 헌신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예비부모교육'이 필요하다[13]. 또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교수가 롤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수자의 인성가치관 확립과 인성교육에 대한 인적, 물적 학교 환경 조성 이 필요하며, 향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학교 학습 상황 내에서 가족건강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교육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영남지역의 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나, 전국 간호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한 할당표본추출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편의 표본추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기체 변인인 의사소통능력과 미시체계 변인인 전공만족도, 가족건강성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55.6%이었다. 인성은 포괄적이며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역동적인 체계이므로[7]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생태체계이론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환경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이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 이론을 근거로 유기체변인과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인을 포함한 모델을 설정하고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설명력이 높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태학적체계이론에 근거한 이론적 기틀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가족건강성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가족건강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때 의

사소통능력과 전공만족도, 가족건강성을 고려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생태학적 이론적 기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가족건강성의 향상을 포함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영향요인에 대한 반복연구와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예측변수를 파악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K. J. Lee, S. S. Yang, S. H. Cha,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oll 2013(RR2013-35), regular repor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orea, pp.5-6.
- [2] H. J. Kim, H. S. Kim, S. J. Um, J. J. Yoon, S. A. Lee, H. J. Hyun, Personality Education. p.10-29, Changjisa, 2017.
- [3] J. H. Park, "Essential competency of new graduate registered nurse that has been perceived by experienced senior nurs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 pp.567-575,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1.46>
- [4] S. S. Sim, M. R.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2, pp.634-642,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2.634>
- [5]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Manual. [cited 2017 July], Available From: <http://www.kabone.or.kr/HyAdmin/upload/filelinkFile> (accessed June 2019)
- [6] J. H. Park, "Need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5, No.6, pp.3321-3332, 2013.
- [7] G. W. Allport,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1937.
- [8] U.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p.21-49, Havard University Press, 1979.
- [9] H. A. Lee, M. J. Chin, "Policy study on parents support for character education within fami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1, No.4, pp.65~82, 2013.
DOI: <https://doi.org/10.7466/JKHMA.2013.31.4.06>
- [10] M. H. Jeong, "Effects of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9, pp.302-314,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9.302>
- [11] M. R. Lee, M. H. Nam, "Personality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6, pp.427-437,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6.24>.
- [12] H. J. Lim, *Verify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reativity and Integrity, Metacognition, Mastery-Approach Goal, Communication Skills, and Autonomous Educational Climate at the College Level*,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64-119, 2015.
- [13] I. S. Park, *Reconsideration of Character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Current Status of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and Character Practice of University Students*, Ph.D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60-113, 2017.
- [14] Y. S. Lee, H. Y. Kang, S. J. Kim, "A validation study of the character index instrumen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No.31, pp.261-282, 2013.
- [15] H. H. Lee, E. J. Kim, M. K. Lee, "A validation study of korea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the PANAS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2, No.4, pp.935-946, 2003.
- [16] M. J. Yoon,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Thought, the Search and the Presence for Meaning in Life on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Affect and Lif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29-38. 2012.
- [17] G. W. Ban,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of Influencing on Adolescent's Activity Competency*, Ph.D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pp.20-59, 2015.
- [18] K. 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47, No.6, pp.380-408, 2003.
- [19] Y. J. Yoo, I. S. Lee, S. K. Kim, H. J. Choi, "Development of Korea Family Strengths Scale(KFSS-II)",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Vol.31, No.4, pp.113-129, 2013.
DOI: <http://dx.doi.org/10.7466/JKHMA.2013.31.4.113>
- [20] T. J. Jang,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pp.12-22, 2015.

- [21] M. R. Lee, Y. K. Kwag,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7, pp.491-499,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imahs.2017.07.74>
- [22] T. Lickona, "Character education: seven crucial issues", *Action in Teacher Education*, Vol.20, No.4, pp.77-84, 1999.
DOI: <http://dx.doi.org/10.1080/01626620.1999.10462937>
- [23]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cited 2015 January 20],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accessed June 2019)
- [24] H. M. Hwang, "Relationship among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Health Communication*, Vol.12, No.1, pp.1-10, 2017.
DOI: <http://dx.doi.org/10.15715/kihcom.2017.12.1.1>
- [25] S. B. Lim, *The effect of perceived family strength on outlook on marriage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ed by self-differentiation*,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pp.38-45, 2016.
- [26] M. H. Nam, H. O. Kim, "Effect of personalit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4, No.4, pp. 298-306, 2018.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4.298>
- [27] M. S. Lee, C. S. Hong, "A study of relationship among the nursing students personality, self concept and perceptual orientation", *Chungnam Medical Journal*, Vol.17, No.10, pp.301-313, 1990.
- [28] Y. H. Kim, M. S. Kang, "The Effects of Action Learning in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9, No.4, pp.211-243, 2015.
- [29] M. K. Kim, H. A. Nam, A. Y. Lee,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Process on Clinical Decision-Making of Nursing Students in Graduation Yea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5, pp.877-885,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5.877>
- [30] G. R. Seo, *The effect of self-esteem, communication, and family health perceived by adult men and women on personality values*,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Korea, pp.35-67, 2017.

남 성 미(Soung-Mi Nam)

[중신회원]



- 2000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5년 6월 : 경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05년 3월 ~ 2014년 2월 : 거제교육지원청 보건교사,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교육평가, 성인간호학

박 정 숙(Jeong-Sook Park)

[정회원]



- 1989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1990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학장, 간호과학연구소장, 간호처장 역임
- 2000년 2월 ~ 2001년 2월 : University of Wisconsin 교환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건강증진, 간호교육, 중앙간호, 통증간호

신 은 정(Eun-Jung Shin)

[정회원]



- 2010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수료)
- 2013년 7월 ~ 현재 :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간호교육